

##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능성 소재 및 전열교환 환기설비에 관한 실험적 연구

박 용 승<sup>1</sup>, 박 선 효, 홍 천 화

대림산업(주) 기술연구소

### Experimental Study on the functional material and Energy Recovery Ventilation Equipment for Energy Saving

Yong-Seung Park, Sun-Hyo Park, Cheon-Hwa Hong

Technology Research Institute, Daelim Industrial CO.,LTD, Seoul 110-732, Korea

#### 요 약

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열원기기의 효율, 건물의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게 된다. 공동주택의 경우 외피의 단열성능 향상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열재의 두께증가와 이중창 설치 등을 들 수 있지만, 이에 따른 벽체의 두께 증가와 함께 실내면적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. 따라서,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축적·설비적 방안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

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중 건축적 방안인 고단열 유리와 단열재, 기능성 소재 및 설비적인 방안 중 하나인 전열교환 환기설비를 적용했을 때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저감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의 개발에 활용코자 한다.

본 연구는 고단열 유리와 단열재, 기능성 소재 및 전열교환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였으며, 에너지 저감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건설현장의 단위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형 세대와 일반세대 두개의 실험세대를 구성하였다.

두 실험세대의 실험요소 이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부여한 후, 실내설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동되는 냉방설비(에어컨)의 에너지 소비량을 적산전력계를 통해 측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에너지 저감량을 평가하였다. 평가결과 각 Case 별 13.8%~32.6%의 에너지 절감률을 보였으며, 4가지 아이템을 모두 적용한 Case D가 상대적으로 큰 절감 효과를 나타내었다. 그러나 Case B(유리+단열재)보다 적용아이템이 한가지 더 많았던 Case C(유리+단열재+잠열보유Plaster)의 에너지 절감률이 낮아진 것은 Case C의 실험기간 동안 외기온도가 이전단계 실험기간의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실내설정온도를 24°C에서 20°C~22°C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설비(에어컨)의 가동시간이 줄어들어 따라 그만큼의 에너지 부하차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. 따라서,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물일수록 에너지 절약형 소재 및 시스템의 적용이 대두되는 것이다.

#### 참고문헌

- Lee, S. Y., 2002, An Evaluation of Energy Performance of Radiant Floor Heating and Cooling Integrated with Ventilation System, SungKyunKwan University, Su Won, Korea. Seoul, Korea
- KIER, 1999, A study on the typical energy consumption criteria in building, KIER Report 9883522.